

## 경험구성 문예학의 반(反)해석학적 입장과 사회적 실천성\*

권오현  
(서울대학교)

**OH-Hyun Kwon(2006). Anti-hermeneutical viewpoint and social relevance of the empirical literary studies.**

The current literature education at tertiary level in Korea is facing an unprecedented crisis. Above all, this crisis has resulted from the current tendency that the research outcome of the humanities is evaluated in terms of "social relevance" (Ger. *gesellschaftliche Relevanz*) in Korea. Hence, we observe that the practice-related matters of the Korean society tend to be coupled with literary studies (e.g. literature and environment or literature and women). In this regard, we need to critically scrutinize the current research tendency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literary studies (Ger. *Literaturwissenschaft*). Being well aware of the current need to conduct this kind of critical studies, this research analyzes the practice-oriented research trend arising from the institutionalized literature education in Korea. The analytical tool for this study has a bearing on the social practical values that the German empirical literary studies (Ger. *empirische Literaturwissenschaft*) stand for. That is, this research investigates what kind of possibilities and dangers exist when the anti-hermeneutical mode of epistemology based on the "empirical literary studies" becomes the basis of "the social practice". At the same time it will be also revealed how some practice-related basic components of the "empirical literary studies" can be linked to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Korean literature education at tertiary level.

### I. 들어가는 말

현재 대학의 문학교육은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외국문학 관련 학과를 기존의 어문학 중심에서 지역학 중심으로 개편하는 추세는 그러한 위기가 표출된 하나의 구체적 예이다. 대학의 문학교육이 이처럼 '정당성 Legitimation'의 재확립을 요구받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문학의 연구결과가 어떻게 "사회적 실천가치 *gesellschaftliche Relevanz*"와<sup>1)</sup> 연결될

\* 이 연구는 2003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학술연구비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1) 여기서 '사회적 실천가치'란 유용성 내지 응용성의 관점에서 문학이 사회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도를 의미한다.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도 관련을 맺는다(Vgl. Rompeltien 1994, 234).

이처럼 ‘상아탑’으로 대변되던 대학에서도 사회적 실천가치가 부각됨에 따라, 그동안 인문정신의 토양에 의지하여 문학을 연구하는 방향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의 여러 현실적 문제들이 문학연구와 결합(문학과 환경, 문학과 여성 등)하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이제 이러한 현상을 문예학의 관점에서 정밀하게 조명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하여, 지금 한국의 문학교육에서 부각되는 실용지향적 경향을 독일의 ‘경험구성 문예학 empirische Literaturwissenschaft’이 표방하는 사회적 실천가치와 관련하여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는 경험구성 문예학이 표방하는 응용지향과 반(反)해석학적 인식이 ‘사회적 실천성’의 토대가 될 때 어떠한 가능성과 위험성을 함께 지니는가, 그리고 실천성과 관련된 경험구성 문예학의 몇몇 기본 요소들이 문학교육의 위기 상황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이다.

## II. 문학이 받는 도전

### 1. 반(反)해석학적 이해

일반적으로 문학텍스트를 이해하는 공인된 방식을 ‘해석 Interpretation, Auslegung’이라 한다.<sup>2)</sup> 이런 점에서 해석은 문예학자가 “매일 먹는 빵 das tägliche Brot”(Frank 1989, 123)이며, 문예학은 “해석을 위한 학문 Interpretationswissenschaft”(Spree 1996, 167)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해석’은 인문적 교양 이념이 높게 평가되던 시절에 문학을 이해하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큰 신뢰를 받았다. 이 때는 문학적 식견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안목으로 작품에 담긴 숨은 의미를 찾아내는 능력이 교양의 대표로 간주되었고, 그런 만큼 ‘해석’의 인식 기능과 쉽게 통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도→기획→실현>이라는 경제 논리가 지배하는 후기산업사회에 이르면 ‘해석’은 과학적 엄밀성과 생활세계로의 응용 측면에서 다른 활동보다 뒤짐으로써, 사람들은 ‘해석’에서 사회적 실천의 힘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2) 크게 보아 해석은 ‘인식론적 개념 ein erkenntnistheoretischer Begriff’과 ‘기술적 개념 ein technischer Begriff’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이해 Verstehen’와 동일한 것으로서 인간의 모든 인식이 지닌 불가피한 속성을 나타낸다. 반면에 후자는 특정한 원리나 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의식적 번역 행위를 의미한다. ‘반해석’이라고 했을 때 해석은 대개 후자에 제한된다.

그 결과, 문학 연구에 위기가 찾아온 상황이 ‘해석의 속성과 상관관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가 자주 이루어졌다. 실제로 일반인들 사이에는 문예학자들이 애써 행하는 ‘해석’의 방식을 삶의 치열성과 동떨어진 잉여적 활동쯤으로 폄하하는 사람들이 자주 목격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보면 ‘문학의 위기’는 곧 ‘해석의 위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학 연구가 위기 상황을 벗어나 새로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문학과 만나는 주된 방식인 ‘해석’ 행위 자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석’을 통해 문학에 접근하는 방식이 현대 사회의 일반적 가치추구(신속성, 정확성, 효용성 추구 등)와 어떤 면에서 충돌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충돌로 인하여 해석 방식에 대한 신뢰가 차츰 약화되고 있다면 이를 문예학 내의 관심을 통해 새롭게 균형 잡을 수는 없는지 등에 대한 학문적 분석이 요구된다. 물론 해석에 대한 메타적 접근은 기존에도 ‘문학 해석학 literarische Hermeneutik’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것은 대개 철학적 측면에 집중하여 문예학의 현실적 문제점을 들여다보는 데는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았다.

또한 문예학 내에서도 ‘해석에 대한 해석’이 아주 분분하다. 연구자가 문학적 식견을 바탕으로 내린 객관적 판단만을 해석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연구자의 주관적 평가나 심지어 완전히 개방된 판단까지도 해석의 범주에 두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하여 해석의 강한 생존력은 해석이 다른 이해 방식보다 수행능력이 우월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석 개념의 애매함과 다의성”에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Sprey 1996, 167). 현대 문학이론과 문학교수법이 여러 갈래의 ‘해석비판’에서 출발하는 이유도 해석이라는 용어가 지닌 이러한 다층적 특성 때문이다. 해석비판적 입장은 그동안 인문정신이 두텁게 자리 잡은 대학의 문학연구에서 큰 호응을 얻지 못하였지만, 문학의 사회실천적 가치가 부각되면서 반(反)해석학적 입장들은 문예학에서 새롭게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문학이 매체나 대중문화 등과의 결합을 통해 연관 영역을 확장하는 현상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해석에 대한 비판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문학 해석이 지나치게 학문적 기준을 따른다.’는 비판이며, 다른 하나는 반대로 ‘문학 해석이 너무 주관적 판단에 의존해 충분한 과학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비판이다.<sup>3)</sup> ‘심미적 토대 위의 해석비판’으로 불리는 전자는 손탁(S. Sontag)의

3) 이와 같이 해석에 대해 서로 상반된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는 현상은 앞에서 언급한 바처럼 해석 개념이 대단히 다의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해석에 반대하며 Gegen Interpretation」(1982)에서 출발한다. 그녀에 의하면, 문학텍스트의 독서는 하나의 올바른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이성으로 풀어나가는 수수께끼나 숨바꼭질이 아니라 개인의 삶과 관련된 경험이며 체험이다. 이러한 심미적 경험이나 문학 체험은 근본적으로 언어 외적 현상이기 때문에, 체험을 언어의 의미에 묶어두려 하면 체험이 지닌 독특한 매력은 사라져 버린다. 이런 점에서, 절대적으로 언어표현에 의존하는 해석은 ‘체험’의 대상을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잣대로 진단한다고 볼 수 있다. 손탁(1982, 15)이 “해석은 지력이 예술에 가하는 보복행위 Interpretation ist die Rache des Intellekts an der Kunst.”라고 규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두 번째 비판은 ‘학문이론적 토대 위의 해석 비판’이라 하는데, 이것은 특히 ‘경험구성 문예학 empirische Literaturwissenschaft=ELW’에 의해 제기되었다. 슈미트(Siegfried J. Schmidt)와 그뤼벤(Norbert Groeben) 등에 의해 대표되는 ELW은 다른 문학이론에 비해 이론과 실제의 과학성에 대해 대단히 높은 요구를 한다. ELW의 입장에서 보면, 해석은 너무 주관적이고 과학적 인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해석의 신빙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해석학적 hermeneutisch’ 정신이 두텁게 자리 잡은 대학의 문학연구에서 큰 호응을 얻지 못하였지만, 요즘 들어 문학이 매체나 대중문화 등과의 결합을 통해 연관영역을 확장함으로써 ELW의 반(反)해석적 입장이 새롭게 관심을 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상세히 언급한다.

## 2. 문학의 응용성

산업화와 정보화를 통해 야기된 제반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생활실제적 관점이 부각됨에 따라 모든 전공 분야에서 학문적 인식을 응용하려는 입장이 일반화되고 있다. 그리하여 문예학도 응용성의 문제에 대해 국외자의 위치에 머물 수 없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인문학에서 위협스러운 요소도 지니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경험적 작업을 통해 실제 사실을 보다 정밀하게 이해하고 이를 사회적 문제와 직접 관련시키려는 연구태도는 인문학을 사회학에 근접시키는 부작용을 나을지 모른다. 정신과학의 본질을 유지한 채 사회적 요구에도 대답해야 하는 딜레마는 오늘날 인문학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응용 Anwendung’은 “기반연구 Grundlagenforschung(=이론연구)에서 얻은 지식을 다른 기반연구 차원의 지식이 아니라 생활실제적 혹은 사

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투입하는 것”(Rusch 1986, 156)을 의미한다. 기반연구에서는 새로운 이론적 모델과 방법론을 찾아 이들을 학문체계 속에 자리 잡게 하는 것이 중요한 반면에, 응용은 기반연구의 특정 요소들을 토대로 사회적으로 관심을 끄는 문제들의 해결을 모색한다. 즉 응용은 기반연구에서 얻은 지식의 직접적인 활용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인간의 실제적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종의 봉사 활동”에 가깝다(Ebda. 156).

문예학이 응용의 관점으로부터 도전을 받는 현상은 학문적 작업이 사회경제적 유용성, 문화적 발전, 실천 가능한 지식 습득을 위한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는 데 기인한다. 독어독문학 분야에서 응용지향은 60년대 말과 70년대 초에 독일에서 진행된 사회적 실천가치와 기능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한다. 당시의 논의는 매체의 확산과 다양화에 따른 문화적 변화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빠르게 확산되는 사회적 지식, 기능적 연관성에 대한 깊은 이해의 필요성, 문학과 관련하여 사회과학적 설명 모델에 대한 관심 증대 등이 문헌학적 사고로는 풀기 어려운 실천적 접근 방법에 대한 수요를 촉진시켰다. 매체의 다양화가 책을 통한 지식을 급격히 상대화시킴으로써 서적 문화에 의존하던 정신과학의 가치가 희석되고 이는 서구의 인문적 전통과의 단절을 초래하였다. “고전의 죽음 Klassikersterben” 혹은 “전통에 난 구멍 Traditionsloch” 등은 사회적 관심사인 ‘숲의 죽음 Waldsterben’이나 ‘오존층구멍 Ozonloch’에 빗대어 서구의 인문적 전통과의 단절을 표현한 코드들이다 (Vgl. Bamberger 1993, 11).

응용은 사회실천적 의미와 관련하여 문학연구의 영향범위를 확장하는 전제가 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학문행위와 사회실천적 의미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 먼저 규명되어야 한다. 핑케(Finke 1982)가 제시한 바에 따르면, 분과학문은 사회에 단지 관념적으로 유용해서는 안 되며 본질적 구상 자체가 유용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문체계는 연구의 전(前)과 후(後)에 이종으로 학문외적 관심으로 대변되는 사회실천적 의미와 관련을 맺는다. 즉, 분과학문의 수행은 <①학문 외적 관심 → ②학문내적 연구 → ③학문 외적 적용>이라는 큰 연구구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점에서 보면, 사회적 유용성 추구는 학문 행위에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문학에서도 사회적 유용성이라는 ‘비학문적 규범 혹은 목표의식 nicht-wissenschaftliche Normen oder Zielsetzung’은 연구수행의 동기와 결과에

함께 연결된다(Sprece 1996, 196). 작가는 이미 사회적 이슈나 개인적 관심사를 기반으로 작품을 생산하였으며, 독자나 연구자도 이러한 학문 외적 문제 의식을 토대로 작품을 수용한다. 그리하여 문학 작품 속의 사실들은 학문적 관심사이기에 앞서 먼저 사회적 관심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 못지않게 문학과도 생활세계의 문제들을 진단하는 과업과 대단히 밀착되어 있다. 물론 문학연구의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요구들이 기반연구와 대응적으로 존재할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학문외적 사실과 학문내적 체계 사이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논점의 핵심은 사회적 효용성을 작품 내용의 실천적 해석에 두는 데서 나아가, 아예 문학공부 자체를 사회적 과업(인력 양성 등)을 수행하는 경로로 삼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처럼, 이미 60년대 중반과 70년대 초에 ‘사회적 실천가치’는 독어독문학 분야에서 언어학과 문예학을 개편하는 중심 동력이었다. 이 때 문예학 분야에서는 문학의 기능을 인문적 지식이나 문예적 교양에서 찾는 관점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면서 문학의 대상과 연구방법의 확장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당시 문예학이 영역 확장을 통해 사회실천적 의미를 확보하는 것은 시대에 더욱 적합한 연구대상을 끌어들이는 방식에 한정되었다. 즉 관심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문예학에서 사회실천적 문제의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사회 인식을 토대로 문학을 다루려 하는 데 있었다. 반면에 경험구성 문예학은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실천적 과업을 문학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연구대상을 수용하는 것만으로는 ‘응용문예학 angewandte Literaturwissenschaft’이라 할 수 없다(Vgl. Hauptmeier 1982, 7). 진정한 응용문예학은 사회적으로 역할(직업 등)을 창출하고 또 여기에 나타난 수요에 적절한 인력양성을 통해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

### III. 경험구성 문예학의 ‘반해석학적’ 입장

#### 1. 목표준거 Zielkriterium의 차이<sup>4)</sup>

‘경험구성 문예학’은 앞장에서 언급한 문학에 가해지는 도전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한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70년대 중반 이후 ‘경험구성 문예학’은 활발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논쟁의 활성화는 무엇보다

4) ‘목표준거 Zielkriterium’은 학문의 지향점을 구분하는 기준, 즉 학문을 학문으로서 존재하게 하는 근거를 의미한다.

나도 기존의 연구프로그램을 가지고는 치유하기 어려운 ‘해석학적 hermeneutische 문예학’의 위기를 극복함에 있어서 경험구성 문예학이 가장 급진적인 대안을 제시한 데 기인한다. 해석학자는 경험적 연구를 고지식한 과학주의의 환상에 젖어 문학의 가치를 실용화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반면에, 경험학자는 해석학적 방법에는 과학적 엄밀성은 없고 오로지 발견술 heuristisch적 가치만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사실 기존의 연구관점에서 보면 경험구성 문예학은 “혁명적인 역동성”을(Groeben 1980, 9) 지니고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는 모든 해석학적 체계를 넘어서서 사실 경험에 기초를 둔 새로운 접근방법이 모색된다. 즉 해석에 의해 발견된 사실들은 상호 주관성을 지니지 못한다는 판단 하에 과학적 인식과정을 통해 최대한 사실 내용에 밀착하는 것이 경험구성 문예학의 주요 관심사이다.

슈미트(S. J. Schmidt)와 더불어 경험구성 문예학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그뤼벤(N. Groeben)은 야우스(H. R. Jauf)가 말한 ‘패러다임전환 Paradigmawechsel’은 독자의 발견을 다시 해석학의 테두리로 수렴시킨 수용미학에 의해서가 아니라, 해석학의 체계로부터 이탈하여 경험사실에 근거하여 텍스트를 분석하는 경험화 프로그램에 의해 비로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Ebda. 16ff und 45ff). 특히 그는 “해석학의 범주에 속한 이론들 중 가장 현대적으로 발전된 형태가 수용미학”이라고(Groeben 1987, 70) 규정하며, 내포된 독자를 다루는 수용미학은 아직 ‘경험학 Empirik’에 이르지 못한 범주로 간주하였다. 반면에 그의 경험학은 실제 독자의 수용형태를 관찰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는 학문이론적 바탕과 방법론적 실행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둔다.<sup>5)</sup> 그러나 과연 해석의 결과로 얻은 사실을 경험의 테크닉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기존의 문예학에서 운위되는 위기가 극복된다고 볼 수 있을까? 파울슈티히(W. Faulstich)와의 논쟁에서 졸름스(Solms, 1986, 154)는, 해석학자들이 문학을 “오로지 자신의 연관영역에 비추어 해명”하고 있음은 인정하지만, 그 대안을 자처하는 “경험구성 문예학도 방법론의 위기를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심화시켜 놓았다”고 단정하였다(Ebda. 148).

하나의 이론이 학문이론적으로 타당한 방법론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그 이론을 구성하는 올바른 ‘목표준거 Zielkriterium’가 설정되어야 한다. 문예학

5) 이것은 ‘행위이론 Theorie des Handelns’의 토대 위에서 문학소통의 계열 체계를 정립하려고 한 슈미트와 구별하는 점인데, 슈미트의 경험구성 문예학 구상이 대체적으로 체계적인 저술 활동을 통해 학문이론적으로 빈틈이 없는 방법론을 구축하고 있는데 비해, 그뤼벤의 경험학 이론은 많은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뒷받침이 미비하다는 인상을 준다.

내에서 경험학이 해석학의 위기를 해소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길을 열어 놓았다면, 그것은 경험학의 목표준거가 해석학의 목표준거를 극복했음을 의미한다. 체계적 방법론적 연구구조로서의 경험학이 충족시켜야하는 준거들은 이미 최소한의 학문성 준거로 이전부터 존재하여 왔다. 그러나 그것의 정확한 해명이나 방법론적 실현에 대한 정확한 기술은 상당한 어려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메타이론적 목표준거의 주요 부분들만 언급하겠다.

그뤼벤(1982, 271f)은 경험적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표준거를 “학문적 혹은 이론적 사실들에 대한 상호주관적인 타당성검토 *die intersubjektive Geltungsprüfung wissenschaftlicher [theoretischer] Aussagen*”인 것으로 규정하였다. 즉, 여기에서는 진실성의 여부를 해석자의 주관적 판단에 맡겨놓지 않고 관찰데이터에 의거한 검증을 통해 확인할 것이 요구된다. 보편타당한 객관적 사실로서의 진리는 문학에서도 더 이상 해석자의 관념세계 혹은 그의 기대지평에 종속되어 상대화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주체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누가 해석에 참여하더라도 사실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결과만이 오로지 학문적 진실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목표준거는 해석학의 방식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해석학에 있어서는 ‘추사고(追思考) *Nachvollziehen*’를 통한 진리로의 접근이 가능하다. 여기서 추사고란 마치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어떤 사실을 파악하는 이해방식을 의미한다. 정서적 동화를 통해 상대방의 심리상태로 들어가거나 사고활동을 통해 그의 정신세계를 들여다봄으로써 상대의 생각과 행동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추사고를 통해 가능하다.<sup>6)</sup> 이러한 준거에서는 해석자의 주관적인 동의만으로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해석자는 자신의 모든 기대지평, 즉 그의 지적, 정서적 감수성이나 판단력에 의거하여 작품이 의미하는 바를 확인한 후, 이들을 구조화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리하여 해석학자는 경험적 연구작업의 효용성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보인다. 예를 들어, 그뤼벤(1975, S.192ff)은 <현대서정시의 소통가능성은 구조미학적 특성에 있어서 고전미학의 영역에 속하는 서정시보다 그 정도가 줄어든다>는 가설을 설정한 후 이것을 실험에 의한 검증을 통해 타당성을 입증하였는데, 해석학자들은 이러한 그뤼벤의 실험결과를 이미 대부분의 현대시 연구가들이 널리 알고 있는 사실을 새로운 방법으로 입증한 데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실험에 의해 얻은 결론이 해석학적 가설과 일치하고 경험적 연구방

6) 그뤼벤(1982, 272)은 추사고에 의존하는 해석학의 목표준거를 ‘명료성 준거 *Evidenzkriterien*’로 규정하였다.



법이 기존의 방법과 비교되지 않는 작업량을 요구한다고 하여 경험적 연구의 결과에 대한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신과학의 추사고 방식은 주체의 내밀한 의식세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언어화되더라도 의식세계에 있을 때의 사고활동과 경험세계로 표출되었을 때의 모습이 차이를 보이게 된다. 추사고방식의 맹점은 사고의 역동성이나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권위나 주관의 확신에 가려 객관화의 길이 쉽게 차단되는 데 있다. 따라서 해석학의 목표준거는 정신과학 내에서 나름대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지만 경험학의 논리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보완적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양쪽의 목표준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해석학(Hermeneutik)	경험학 ( Empirik )
추사고 (Nachvollziehen)	검증 (Nachprüfen)
주관성 (Subjektivität)	상호주관성 (Intersubjektivität)
권위 (Autorität)	타당성요구 (Geltungspostulat)
주관적 확신(subjektive Gewißheit)	정확성 (Exaktheit)
개별사례적(idiographisch)	법칙적 (nomothetisch)

표: 경험학과 해석학의 목표준거의 차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석학의 배경에는, 문학현상은 인과론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심미기능 속에서 이해하며 따라서 문학텍스트는 ‘설명 erklären’ 대신에 ‘서술 beschreiben’을 필요로 한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고 있다. 심미성의 개인적인 만남에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해석에는 감탄, 인정, 실망 등의 말이 자주 등장하기도 한다. 해석자의 서술문체에는 이해의 주관적 토대를 형성하는 심미적 감정이 다분히 침전되어 있다. 이러한 침전물을 제거하고 이해의 명증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험학의 검증방식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왜냐하면 하나의 자아로서의 해석자는 근본적으로 오류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오류조차도 해석의 지평을 넓혀주는 데 기여하는 면은 있지만 문학도 하나의 제도라는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차원을 넘어 공공의 평가를 기다릴 때에는 엄한 진실성의 요구를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진실성의 요구에 화답하기 위해 해석학에서는 지금까지 주체의 지적 판단력이나 창의성 혹은 권위나 신념에 의존하여 왔다. 그러한 경험학은 전혀 다른 토양에서의 신뢰구축을 시도한다. 해석학적 지식을 하나의

가설로 정립하여 ‘기술적 조작 Operationalisierung’<sup>7)</sup>을 통해 이들을 경험세계에서 확인함으로써 추사고로 얻은 사실에 ‘실증’과 ‘반증’의 결론을 내려주거나 특정 텍스트에 대한 실제 독자의 ‘수용진폭 Rezeptionsamplitude’<sup>8)</sup>을 확인하는 것이 경험학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

## 2. 주체-객체 분리

경험학의 목표준거는 학문적 진술에 대해 상호주관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있음은 앞장에서 언급하였다. 이 때 텍스트 수용자와 연구자의 분리가 핵심적 사안으로 등장하는데, 그뤼벤(1982, 272)은 이것을 ‘주체-객체 분리 Subjekt-Objekt-Trennung’로 명명하였다. ‘주체-객체 분리’는 다가성을 지닌 문학텍스트를 해석함에 있어서 전통적 해석 방식처럼 수용자와 분석자가 동일한 데서 오는 주관적 오류의 등장을 억제하기 위한 테크닉이다. 예를 들어 어떤 문예학자가 연구주체와 연구대상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면 그의 인식과 관찰은 연구 이전에 내재하는 자신의 선입관이나 방향설정에 따라 오류에 노출되기 쉽다.

반면에 경험구성 문예학에서는 수용과 분석이 각기 <그>와 <나>의 문제로 나누어진다. <그>의 수용을 토대로 <나>가 분석의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연구의 기본구도이다. 따라서 이 때의 분석은 해석과 같은 추사고의 결과가 아니라 수용자료에 의거하여 텍스트의 의미가 객관적으로 재구성된 것이다. 텍스트의 의미를 구축하는 작업으로서의 분석은 처음에 가설로 내세웠던 진술들이 수용자료에 의해 경험적으로 유효함이 입증됨으로써 실현된다.

‘주체-객체 분리’의 핵심 논점은 <수용→해석→분석>으로 이어지는 이해 방식의 연속성 속에서 ‘해석’의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해석과 분석을 동일시하는 입장에서 보면 분리는 수용과 해석 사이에서 일어난다. 즉 문학행위와 학문행위의 경계점은 수용과 해석 사이에 있다. 그러나 해석도 주관적 이해 방식(비평 등처럼)으로서 학문행위와는 거리를 둔다는 입장에서 보면 분리는 해석과 분석 사이에서 발생한다. 학문이론적 기초를 ‘체계이론’에 두는 슈미트식 경험구성 문예학은 ‘문학체계 Literatursystem’

7) 이 개념은 이론가설 theoretische Hypothese이나 이론개념 theoretische Begriffe들에 직접적 실제 연관성 Realitätsbezug을 부여하여 실험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기술적(技術的)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8) ‘수용진폭’은 레머어트(Eberhard Lämmert)의 용어로 동일한 텍스트에 공시적 통시적으로 상이한 수용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장르나 시대의 차이 혹은 독자가 지닌 기대지 평의 다양화로 인해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수용의 최저치와 최대치를 지칭한다.

와 ‘학문체계 Wissenschaftssystem’를 분리하는데, 여기서 분리하는 해석과 분석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후자를 의미한다. 그에 따르면 문학체계는 인간이 학문성에 대한 전제 없이 문학생활에 단순히 ‘참여 Teilnahme’하는 것으로서, ‘생산 Produktion’ ‘중개 Vermittlung’ ‘수용 Rezeption’ ‘활용 Verarbeitung’의 4 영역을 기본으로 한다. 반면에 학문체계는 메타 차원에서 ‘분석 Analyse’하는 것으로서 문학체계를 학문적으로 관찰하고 서술한다(Hauptmeier u. Schmidt 1985).

이와 같이 ‘문학에의 참여행위 Teilnahmehandlung’와 ‘참여에 대한 분석행위 Analysehandlung’를 구분하는 관점에서 보면, 참여행위는 학문적 범주가 아니며 분석행위만이 학문적인 것에 속한다. 해석도 문학체계의 ‘활용 Verarbeitung’에 해당되는 참여행위이기에 경험구성 문예학이 볼 때는 해석 역시 신문 문예란의 비평(=개인적/주관적 판단)과 같은 수준의 비학문적 활동에 해당된다. 그뤼벤의 ‘주체-객체 분리’를 체계이론에 적용하면, 주체는 문학생활에 직접 참여하는 4 영역(생산-중개-수용-활용)을, 객체는 이들에 대한 메타 차원의 분석을 의미한다.

‘주체-객체 분리’의 다른 관점은 수용과 해석의 구분이다. 작품내재적 해석 방법이 통용되는 시점에서는 수용, 즉 임의의 독자가 행하는 자유로운 해석은 무의미하며 따라서 학문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기능적 텍스트 개념 funktionaler Textbegriff’이 정립되고 독자의 창조적 자유가 수용이론에 의해 새롭게 평가됨으로써 수용도 해석과 동일한 위상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하나의 텍스트에는 공시적 동시에 수많은 수용과 해석이 교차하며 영원한 ‘텍스트과정 Textprozeß’이 작동하게 된다. 텍스트과정에서 수용과 해석의 접근법은 분명히 다르다. 이와 관련하여 그림(Grimm 1977, 51)은 “수용과 해석을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은 작품의 적법성 Werkadäquanz에 대한 요구”라고 하였다. 즉 수용은 적법성에 대한 부담 없이 텍스트에 자유롭게 의미를 부여하는 반면에, 해석은 하나의 지향점을 향하여 끊임없는 추적과 평가를 행한다. 해석이 적법성을 얻기 위해 추적하는 지향점은 기존의 문예학에서는 ‘작가의향 Autorintention’으로 인식되었다. 사실 문학은, 텍스트를 매개로 한 작가와 독자 사이의 의사소통으로 규정하면 텍스트 속에 함유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해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작가의미 authorial meaning’를 해석의 지향점으로 삼기 위해서는 다음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문학테스트 속의 언어질서는 작가의향과 일치한다. 둘째 해석자는 메타소통<sup>9)</sup> 차원에서 작가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 없이

오로지 텍스트 속 언어구조의 해석만으로 작가의향을 재구성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전제가 지켜진다면 해석은 하나의 뚜렷한 지향점을 갖기 때문에 구태여 경험적 분석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서도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릴 기준을 설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순전히 방법론적인 구상에 지나지 않는다. 필자가 보기에 작품의 적법성으로서의 작가의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볼 때 무의미하다.

가) 작가가 텍스트 생산에 반영한 의향들은 대부분 외부로 표출되기 보다는 텍스트 내에 은폐되어 있다. 작가의향은 창작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문학내적 질서, 다시 말하면 심미적 언어코드의 배열 양태나 그 코드들과 코드외적 사실의 특수한 대응관계 등과 같은 문학내적 연관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작가의 표현의도를 밝히는 작업은 필연적으로 ‘텍스트내적 의향 Textintentionalität’ 차원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텍스트내적 의향은 역사적 일회성을 지닌 작가의향과는 달리 발생시점과 직접 연관을 맺지 않으며 “작가와 그의 의향에서 독립된 잠재인자”로서(Grimm 1977, 50) 작용하기 때문에, 수용자나 수용시점 및 수용방식에 따라 얼마든지 가변적일 수 있다.

나) 기능적 텍스트개념의 입장에서 보면 텍스트는 영원한 흐름(=텍스트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텍스트내적 의향의 파악은 언제나 해석자가 처해 있는 사회적 역사적 맥락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해석자가(혹은 해석의 환경이) 텍스트를 수용할 때 하나의 변수로 작용함으로써 기호의 기표와 기의 사이의 일대일 대응은 심각한 손상을 입는다. 문학텍스트는 다의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텍스트의 중립적 의미인 ‘언어적 의미 verbal meaning’<sup>9)</sup>와<sup>10)</sup> 실제 의미실현은 많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해석을 통해 의미를 객관화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실에서 보면 해석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지향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험학의 ‘주체-객체 분리’는 이러한 해석의 지향점 상실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제 분석의 대상은 텍스트가 아니라 텍스트의 전개과정이다. 이에 대해 그뤼벤(1987, 67)은 “(텍스트의) 이해는 방법이 아니라 과학의 대상이다 *Verstehen ist keine Methode, sondern Gegenstand der Wissenschaft.*”라는 명제를 정립하였다. 즉 해석학에서는 텍스트가 대상이고 이해가 연구방법인 반면에, 경험학에서는 이해가 대상이고 경험적 처리가 연구의 방법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파울슈티히(W. Faulstich 1977, 66)에서도 관찰되는데 그는 수

9) ‘메타소통 Metakommunikation’은 작가나 독자가 자신이 체험한 문학소통에 관해 어떤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언급하는 일체의 의사소통 행위이다.

10) 여기서 ‘verbal meaning’은 화용론적 상황과는 관계없이 존재하는 중립적 의미를 말한다.

용으로서의 ‘문학비평’과 그 문학비평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의 ‘문예학’을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문학비평은 자신의 법칙에 따라 텍스트를 평가하며 주관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데 비해, 문예학은 이러한 주관적 수용을 본질적인 대상으로 삼는다.”

수용과 해석의 텍스트이해 방식이 서로 구분된다면 그리고 텍스트이해가 문학연구의 방법이 아니라 대상이라면, 이제 경험구성 문예학은 ‘주체-객체의 분리’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연구자가 자신의 텍스트수용을 연구해서는 임의의 구체화와 텍스트의미를 동일시하는 위험성이 사라지지 않는다. 라이프리트(E. Leibfried 1970, 82)는 현상학적 문학이론을 전개하면서 이러한 구분을 <이해 1 Verstehen 1>과 <이해 2 Verstehen 2>의 분리를 통해 실현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이해 1>은 문학의 체험을, <이해 2>는 체험한 것의 해명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분은 수용의 체계(일차적 이해)와 학문적 해석을 위한 연관 체계(즉 이해된 것에 대한 이차적인 이해)를 나눈 이분화와 일맥상통한다. 해석과정에 있어서 이해체계를 양분함으로써 그는 구체화의 불안정성에 대한 안전장치를 얻으려 하였다.

사실 지금까지 모든 문예학방법론은 <이해 2>를 ‘체험된 것 Das Erlebte’으로부터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실증적 연구의 관점에서 볼 때 결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체험된 것은 사물 그 자체와 동일하다는 생각에서 인간의 이해와 객관세계의 빈틈없는 만남이 가능하다고 여겼었는데, 과연 텍스트해석의 경우 ‘주체-객체의 일체 Subjekt-Objekt-Konfundierung’ 상태에서 학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텍스트의미와의 해후가 가능할까? ‘사실 자체 die Sache selbst’는 파악이 불가능하고 “오로지 나에 의해 체험된 사실만 있을 뿐이다 es gibt nur die von mir erlebte Sache.”라는 라이프리트(Ebd., 116)의 명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 부정적 해답을 준다. 따라서 경험적 수용연구가 문예학 내에서 보다 더 타당성을 획득하고 하나의 방법론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주체로부터 독립된 인식에 이르기 위한 구속력 있는 안정장치인 ‘주체-객체 분리’ 개념이 실천적 해명과 더불어 끊임없는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 IV. 경험구성 문예학의 사회적 실천성

역사적으로 보아 응용의 관점을 분명하게 문예학의 학문이론적 토대에 수

용한 것은 슈미트(S.J.Schmidt 1980)의 경험구성 문예학이 최초인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니어리히(Nierlich 1983)도 실천을 전개하는 경험적 학문으로서의 문예학을 응용지향의 문제와 더불어 정립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시도들은 소위 NIKOL 그룹의<sup>11)</sup> 응용지향적 관심에 큰 자극을 주는데,<sup>12)</sup> 응용지향은 신(경험학) 구(해석학) 패러다임의 본질을 규정하는 하나의 변수로 등장하였다. 패러다임전환은 경험구성 문예학의 발전, 즉 문예학에 인식론적 학문론적 기반뿐 아니라 연구대상의 이론적 요소들에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비로소 전개된 것으로 보인다. 경험구성 문예학과 더불어 전개된 패러다임 전환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문예학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여기서 ‘새롭다’는 것은 단순히 기존의 것에 대한 부정적 어투로 정의될 성질이 아니며(예, 반해석적), ‘새로움’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문예학의 합법성 위기 문제를 극복시켜줄 완전히 다른 문예학의 등장을 의미하였다. NIKOL 그룹의 경험구성 문예학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실천가치를 추구하며 앞에서 언급한 응용성, 경험성, 이론성이라는 메타이론적 근거 위에 존재한다. 그리하여 NIKOL 그룹의 경험구성 문예학이 패러다임 전환의 주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반연구 영역에 버금가는 정도로 응용연구의 토대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지닌다.

경험구성 문예학이 다른 문예학적 입장에 비해 유독 사회적 실천가치와 관련되는 것은 이 문예학이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확대된 문학 개념을 사용한다. 즉 관심의 대상을 문학에서 매체로 확장한다.
- 문학과 관련된 모든 현상과 과정(=문학체계)을 관심의 대상으로 삼는다.
- 문학체계에 직·간접적으로 참가하는 모든 사람(문학주체)들의 실천적 삶을 관심의 대상으로 삼는다.
- 인식이론, 학문이론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경험학적 인식을 전개한다.

경험구성 문예학은 문학을 일반적 매체학의 구성 요소로 설정함으로써 관심의 범위를 매체와 문화의 방향으로 계속 확대한다. 즉 ‘정전화된 문학’보다는 우리 사회에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책이라는 매체’, 혹은 그 이상의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연구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직접 접

11) NIKOL은 80년대에 활동한 경험구성 문예학 분야 연구자 그룹을 말한다. Achim Barsch, Peter Finke, Helmut Hauptmeier, Dietrich Meutsch, Gebhard Rusch, Siegfried J. Schmidt, Reinhold Viehoff 등이 그 멤버들이다.

12) 슈미트(S. J. Schmidt)가 다른 멤버들과 공동으로 구안한 NIKOL 그룹 경험구성 문예학은 핀케(P. Finke)의 ‘구성적 기능주의 der konstruktive Funktionalismus’ 학문이론을 따른다.

근하려 한다. 그리고 일반문예학이 문학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와 그 의미에 관심을 집중한 반면에, 경험구성 문예학은 더 나아가 문학 매체와 관련된 모든 현상들이나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관심 영역으로 끌어들이는데, 그럼으로써 문학 연구를 ‘텍스트작업 Arbeit am Text’으로부터 ‘필드 연구 Arbeit im Feld’로 확대한다.

경험구성 문예학은 문학생산에서부터 문학수용에 이르기까지 제반 활동을 연구함에 있어서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문제를 문학 연구에 통합함으로써 대상 영역의 확장을 이룬다. 그러다 보니 문예학에 제기된 사회적 요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문학과 관련된 실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매체체계의 다양화나 사회적 발전에 상응하는 학문적 전제조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다룬다. 응용연구는 매체적 실제에 활동하는 다양한 영역들과 밀접한 관계를 설정하며 학제적 접근을 요구한다. 이러한 문예학의 연구내용과 새로운 매체이론 및 매체실제적 교육과정의 결합은 새로운 유형의 자질을 양성하는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러한 자질 유형은 교육제도(매체학, 매체교수법)뿐 아니라 매체분야의 기업(기획, 개발, 시장연구)에도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면 실제로 경험구성 문예학이 사회적 실천가치를 추구하는 영역들을 살펴보자. 영역의 분류는 ‘문학체계’, 즉 ‘생산’ ‘중개’ ‘수용’ ‘처리’로 나누어진 문학에의 ‘참여행위 *Teilnahmehandlung*’를 대상으로 한다.

우선, ‘문학생산’ 분야에서는 예를 들어 ‘어떠한 전략의 투입으로 작가가 그들의 출판 기회를 개선할 수 있는가’ 하는 전략 계발을 추구할 수 있다. 테마 선정, 내용구성, 원고작성 등의 기술적 측면, 출판사와 상담하는 상업적 전략, 출판 계약상의 문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문학중개’ 분야에서는 출판사 편집진이 원고의 예술적/상업적 성공을 보다 확실하게 판단하는 전략들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 그리고 심미적 가치를 최대로 유지하면서 상업적 성공을 성취하는 문제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밖에 학교와 대학에서의 문학중개 제도에 대한 연구, 특히 교사나 학생이 더욱 관심 있고 매력적으로 받아들일도록 문학수업을 조직화 하는 문제도 해당된다. 또한 문학을 중개하는 다양한 매체의 보급에 따라 문학적 사회화를 이루는 효과적인 전략도 관심의 대상이 된다. ‘문학수용’ 분야에서는 매체이용자나 독자들이 자신의 독서 욕구에 가장 잘 부합하는 독서물을 발견하도록 유도하는 체계의 계발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차적 혹은 이차적 교육기관에서 창조적이며 주체적으로 매체를 이용하는 전략을 계발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

다. 끝으로 문학행위의 전체 분야(즉 문학이라는 사회적 체계)를 고찰해 보면, 다양한 사회적 하부체계의 상호작용으로 갈등 상황이 발생하는 곳에서 문예학적 응용연구의 과제영역들이 나타난다. 문학작품의 심미성과 법의 보편성이 충돌할 때 형성되는 문학체계와 법체계 사이의 대립이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문학 분야와 관련하여 문화정책을 실현하는 적절한 절차에 대한 연구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구체적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경험구성 문예학이 응용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과연 사회적 관심이나 요구와는 별도로 문예학 내적으로 충분한 연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여기에는 명확하게 답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문예학은 자체 영역을 확대해서라도 사회적 연관점에 대한 합법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문예학은 사회가 문학에 제기하는 요구들에 상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이론적 방법적 도구를 개발할 과제를 지닌다.

이런 점에서 경험구성 문예학은 응용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기존의 인식론적, 학문이론적, 대상이론적 기반연구 외에 새로운 문예학적 활동 영역을 형성하며, 각 영역들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을 설정한다. 인식이론적 학문이론적 관점은 대상이론적 연구 못지않게 응용연구와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경험구성 문예학의 기본관점을 확고하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응용연구가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될 것이다. 지난 몇 년간 경험구성 문예학은 연구의 구조를 학문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대상이론적 연구에 앞서 학문이론 및 인식론적 연구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이런 맥락에서 응용연구의 도입은 “경험구성 문예학이 학문이론을 통해 전개한 지금까지의 성과를 실현하는 마지막 체계적 발걸음”이 될 것이다(Rusch, 165).

요약컨대, 경험구성 문예학은 응용연구 분야에서 이론적 실천적 연구의 구체적인 결과가 나타나야 완전하게 정립된 문예학 이론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응용연구의 도입은 문예학에서 “완전히 새로운 학문적 행위분야를 열어 주는데”(Ebda. 166), 여기에는 문예학자뿐 아니라 문학을 통해 응용가능한 지식에 관심을 갖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험구성 문예학의 생산성을 확신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 있다.



## V. 맺는 말

경험구성 문예학이 추구하는 사회적 실천가치는 문학교수법 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요즈음 문학교육은 작가의 지평에 상응하는 하나의 정전화된 의미를 찾기보다는 독자의 창의적인 수용을 자극하는 이른바 구성주의적 혹은 생산적 관점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독자중심의 문학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석’ 일변도에서 벗어나 문학과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는 길이 열려야 한다. 즉 사회적 실천성에 대한 관심은 학생중심 문학수업을 구상하기 위한 예비 작업으로서 필요하다.

또한 실천가치는 사회적 차원에서 의미 지닌다. 경험구성 문예학의 ‘반해석학적 입장’은 단순히 <해석=문학이해>라는 도식을 타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학을 활용하는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문학의 터를 넓혀 준다. 현재 이야기되는 위기가 문학 자체(존재론적 측면)에 있기보다는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인식론적 측면)에 있다는 사실에서 보면, 문학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에 접근하는 통로를 다양화하고 그 실천가치를 학문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경험학을 토대로 문학의 실천가치를 주목하는 것이 해석학의 배제를 전제로 해서 안 된다. 누가 뭐래도 해석은 문학연구의 본원적 영역이다. 다만 경험학은 지나친 해석 의존도로 인하여 문학이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데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며, 문학의 인문적 가치와 사회실천적 의미를 함께 아우르는 가능성으로만 존재해야 한다. ‘경험’이란 객관세계에 산재해 있는 실체이기 때문에 무시해서도 안 되고 절대화해서도 안 된다.

결론적으로 말해, 해석학과 경험학은 다원적 학문인 문예학 내에서 서로 올바른 위상을 정립할 과제를 안고 있다. 두 분야가 서로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상호보완적 역할 속에서 존재가치를 발견할 여지가 문예학에는 충분히 존재한다. 경험학과 해석학이 만나는 지점에 대해 학문이론 차원에서 보다 논리정연하게 해명하는 것과, 해석학에 상대적으로 미약한 문학 응용(혹은 실천)의 길을 경험학을 통해 수용함으로써 문학의 사회적 실천가치를 함께 제고하는 노력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경주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Barsch, Achim u.a.(Hrsg.)(1994): Empirische Literaturwissenschaft, Frankfurt/M.
- Blamberger, G. u.a.(1993): Berufsbezogen studieren. Neue Studiengänge in den Literatur-, Kultur- und Medienwissenschaften, C.H.Beck, München
- Faulstich, Werner(1977): Domänen der Rezeptionsanalyse. Probleme - Lösungsstrategien - Ergebnisse. Athenäum Verlag, Kronberg/Ts.
- Finke, P.(1982): Konstruktiver Funktionalismus. Die wissenschaftstheoretische Basis einer empirischen Theorie der Literatur, Vieweg. Braunschweig
- Flacke, Michael(1994): Verstehen als Konstruktion. Literaturwissenschaft und radikaler Konstruktivismus, Opladen
- Frank, Manfred(1982): Textauslegung, In: Erkenntnis der Literatur, hrsg.v. D. Harth u.a., Metzler Verlag, Stuttgart, 123-160
- Grimm, Gunter(Hrsg.)(1977): Rezeptionsgeschichte. Grundlegung einer Theorie mit Analysen und Bibliographie, Wilhelm Fink Verlag, München
- Groeben, Norbert(1975). Die Kommunikativität moderner deutscher Lyrik, In; Literarische Rezeption, hrsg.v. H. Heuermann u.a., F. Schöningh Verlag, Paderborn, 192-214
- Groeben, Norbert(1979). Zur Relevanz empirischer Konkretisationserhebungen für die Literaturwissenschaft, In: Empirie in Literatur- und Kunstwissenschaft, hrsg.v. Siegfried J. Schmidt, Wilhelm Fink Verlag, München, 43-82
- Groeben, Norbert(1980). Rezeptionsforschung als empirische Literaturwissenschaft. Paradigma- durch Methodendiskussion an Untersuchungsbeispielen, Gunter Narr Verlag, Tübingen
- Groeben, Norbert(1982): Empirische Literaturwissenschaft. In: Erkenntnis der Literatur, hrsg.v. D.Harth u.a., Metzler Verlag, Stuttgart, 266-297
- Groeben, Norbert(1987). Verstehen, Erklären, Bewerten in einer empirischen Literaturwissenschaft In; Rezeptionsforschung zwischen Hermeneutik und Empirik, hrsg.v. E. Ibsch u.a., Rodopi Verlag, Amsterdam
- Hauptmeier, Helmut(1982): Probleme einer Angewandten Literaturwissenschaft. In: Angewandte Literaturwissenschaft, hrsg.v. Arbeitsgruppe NIKOL, Vieweg & Sohn Verlag, Braunschweig, 1-120
- Hauptmeier, Helmut/Schmidt, Siegfried J.(1985): Einführung in die Empirischen Literaturwissenschaft, Friedr. Vieweg & Sohn Verlag, Braunschweig
- Jauß, Hans R.(1972). Paradigmawechsel in der Literaturwissenschaft. In;

- Methoden der deutschen Literaturwissenschaft, hrsg.v. V. Zmegac, Athenäum Verlag, Frankfurt/M.
- Jauß, Hans R.(1979): Literaturgeschichte als Provokation der Literaturwissenschaft. In; Rezeptionsästhetik, hrsg.v. R. Warning, Wilhelm Fink, München, 126-162
- Leibfried, Erwin(1970): Kritische Wissenschaft vom Text, Kohlhammer Verlag, Stuttgart
- Mussil Stephan(2001): Verstehen in der Literaturwissenschaft, Universitätsverlag C. Winter, Heidelberg
- Nierlich, E.(1983): Das Literarische. In: SPIEL 2, 1983, H.1, 183-207
- NIKOL(Arbeitsgruppe)(1986): Angewandte Literaturwissenschaft, Vieweg Verlag, Braunschweig
- Rompeltien, Bärbel(1994): Germanistik als Wissenschaft, Westdeutscher Verlag, Opladen
- Rusch, Gebhard(1986): Anwendungsorientierte Literaturwissenschaft. In: Angewandte Literaturwissenschaft, hrsg.v. Arbeitsgruppe NIKOL, Vieweg & Sohn Verlag, Braunschweig, 153-170
- Schmidt, Siegfried J.(1971): Ästhetizität. Philosophische Beiträge zu einer Theorie des Ästhetischen, Bayerischer Schulbuchverlag, München
- Schmidt, Siegfried J.(Hrsg.)(1979): Empirie in Literatur- und Kunstwissenschaft, W. Fink Verlag, München
- Schmidt, Siegfried J.(1980): Grundriß der empirischen Literaturwissenschaft Tb.1, Der gesellschaftliche Handlungsbereich Literatur(1980) Friedr.Wieweg & Sohn Verlag, Braunschweig/Wiesbaden
- Solms, Wilhelm(1986): Ein Ausweg aus dem Interpretationspluralismus? Kontroverse anlässlich einer Meinungserhebung zu R. Musils 'Hasenkatastrophe' In; Kontroverse alte und neue, Akten des 7. Internationalen Germanisten Kongresses Göttingen 1985 Bd.11, M. Niemeyer Verlag, Tübingen
- Sontag, Susan(1982): Gegen Interpretation. In: Kunst und Antikunst(Susan Sontag), Frankfurt/M., 11-22
- Spree, Axel(1995): Kritik der Interpretation. Analytische Untersuchungen zu interpretationskritischen Literaturtheorien, Ferdinand Schöningh
- Spree, Axel(1996): Kritik der Interpretation. In: Arbeitsbuch Literaturwissenschaft, hrsg.v. Th. Eicher u. V. Wiemann, Paderborn, 185-215